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

경북도, 정부서 '경주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22일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대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즈음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300만 도민과 함께 존중하며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감하게 결단한 윤 대통령과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여야 정치권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진피해 극복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서 어려움을 딛고 다시 우뚝 서겠다"면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12 지진피해복구 특별지원단'을 현장에 상주시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부지사를 단장으로 19명으로 꾸려진 '지진복구 지원단'은 23일부터 경주에 내려가 피해 상황 관리, 피해복구 활동, 인력 및 장비 동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

또한 도는 정부와의 협력을 최대한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비지 피해조사에 행정력

을 집중한다. 그리고 도와 경주시는 정부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조력을 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간다.

이날 김 지사는 "놀라고 걱정하신 시민들을 위한 심리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다각적인 지역안정 대책을 통해 지역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겠다"고 했다.

이미 경주 지역에 3개 팀의 '지진 피해 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순회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경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경상북도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4개 팀 70명이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벌써 661명이 상담·치료했다. 도는 앞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 아닐 것예 대비해 도립병원과 인근 지역 시군 보건소의 인력을 활용해 지원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안들도 내놨다. 우선 '지진 대응 행동요령'을 정리하고 도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재별로 제작해 각 가정으로 긴급히 배포했다.

아울러 경주 지역 지진대피 장소를 67개소에서 113개로 확대하고 안내



판을 설치한다. 또한 지진 대피소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진이 감지되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안내와 질서 유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아·동장·세마을지도자·지역자활방장단원들도 추가로 투입해 이들을 돕도록 한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을 활용해 지진 발생을 가상한 '지진대응 특별민방위 훈련' 실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역사도시 천년고도 경주에 다시 활기를 되찾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응원을 부탁한다"며 위축된 경주의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10일부터는 특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경주의 관광산업을 되살리는 데 주력한다.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국 간부들이 방문 홍보를 전개하는 동시에, 경북관광

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해 해외 마케팅에도 주력한다.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교육부는 물론 시도 교육청을 직접 찾아가 가릴 수 학여행을 경주로 오도록 요청하고 정부와 기업의 각종 회의, 세미나를 경주로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에는 피해복구를 위한 다양한 정부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공공시설물 복구에 소요되는 국비지원 비율이 높아져 경북도와 경주시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고 피해보상 등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 도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국제 기부 업무에, 각종 공공 공사 감면과 함께, 영농보상금과 중소기업 운영자금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기대된다.

교원들의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대구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휴(休)' 전문상담위원 21명 위촉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준비한 '에듀힐링센터-휴(休)' (이하 '센터') 구축을 앞두고 교원 심리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3일 지역서회 유관 기관의 전문상담위원 21명을 위촉했다.

교육부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시범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 교육청 본관 3층에 구축된 센터는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교육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주로 변호사, 상담사, 퇴직교원, 전문직으로 구성된 교원 보호 전담 기구인 '찾아가는 교원119' 운영, 피해 교원의 상담 및 심리치유, 에듀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원 자기 진작 등 교원 심리치유용 콘텐츠를 다뤄 역할을 한다.

또한 교원철해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교직 스트레스를 받는 일반 교원

까지 교원 누구나 전문상담사와 개인 및 집단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스트레스 해소 및 자유를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교원철해 피해 교원의 심리치유를 위해 MOU를 맺은 6개 종합병원의 심화원(진단-상담-치료) 맞춤 상담치료 및 피해 교원의 지속적인 자유를 위한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 달 더 나아가 센터에 대한 교원들의 접근성 제고 및 센터 방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원들이 교육청 밖에서도 부담 없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전문 인력 있는 대평병원 Wee센터를 교원 심리 상담소로 위탁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위해 지역대학 상담심리 전공 교

수 15명, 지역 상담센터 상담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21명의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문인에게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

상담 절차도 간단해 상담을 원하는 교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상담 신청만 하면 센터에서 상담 신청서를 바탕으로 전문상담위원과 상담 연결을 하여 개별로 전문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담 종결 후 상담위원들이 그 결과를 센터에 제출하는 형태로 교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힐링센터-휴를 통해 교원의 교직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지원과 전문상담사와의 상담 치유 지원으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수도 대구 위상 엮는다

대구시교육청,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6년 연속 최우수 선정

대구시교육청은 국립특수교육원 주최로 지난 6일과 7일 일일간 경주에서 개최된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전국특수교육정보대회)에서 최우수 4종목, 우수 8종목, 장려 4종목, 총 16개 종목을 메달을 수상했다.

이에 6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성적을 거두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이 대회는 올해부터 별칭이 '전국특수교육정보대회'에서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로 변경됐다.

이번 대회에 전국 17개 시·도 1천 184명의 대표선수가 참가했고 대구는 대구지역 예선전을 통과한 정보경진대회 분야 18명, e스포츠투 분야 22명 총 40명의 대표선수가 출전했다.

정보경진대회부문 총 16개 종목 중 지체장애특수학교 아리한글(ITU) 부문(대구정보학교 김하영), 청각장애특수학교 아리한글(ITU) 부문(대구영화학교 권은지)이 두 종목에서 최우수상으로 교육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e스포츠투부문은 총 9개 종목 중 특수학교 시각정보 오델로 부문(대구광명학교 공민서)과 특수학교 지적장애 마구마구 부문 단체전(대구정보학교 정재형, 차범규, 이영진) 두 종목에서도 최우수상을 획득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이로써 대구는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4종목 6명, 우수 8종목 13명, 장

려 4종목 4명 총 16종목에서 23명의 메달을 수상했다.

아울러 정보와 대회에 강세를 보임으로써 대구의 전통을 이어 가 대한민국교육수도 대구의 위상을 엮을 수 있다.

서정하 초등교육과장은 "타 지역의 맹추격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학기 중에는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방학 중에는 대구교육청의 집중순회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와 학생, 교육청이 함께 달려온 꾸준한 준비와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선대회를 거쳐 전국대회까지 함께한 선수단원 비대한 교육공동체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작은 노력

대구시,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실시

대구시는 출산장려 정책의 체계도를 높이고 다자녀 가정 우대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600명을 선발해 1가정 1인 5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오는 20일부터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대구에 거주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중 첫째 자녀가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인 재학 중인 다자녀가 4명 이상이면 1명 이상 관내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지원받은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시·구·군 홈페이지 공공포털 확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대상자나 가정 주사가 주소지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인 재학 중인 다자녀가 4명 이상이면 1명 이상 관내 고등

자녀로 ▲1순위는 4명 이상이며 1명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 ▲2순위는 3명인 가정 중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며 2명 이상 고등학교에 재학 ▲3순위는 3명인 가정 중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인 재학 중인 가정 순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저출산 극복 시책들이 출생사 기준에 맞춰져 있어 이미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자녀 가정 우대분위기가 조성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시, 대학생 행복출산 서포터즈 운영

김천시(시장 박보성)는 2016년 출산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보건대학교와 연계하여 김천시 관내 대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대학생 행복출산 더하기 지도자 과정 교육을 했다.

행복출산 더하기 지도자과정을 수료한 대학생 114명은 '2016년 대학생 행복출산 서포터즈' 발대식을 하고 9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대학생 행복출산 서포터즈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생 행복출산 서포터즈는 지역

사회 주민과 학생들에게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하고 행복한 출산문화 형성을 위해 행복출산 UCC를 만들어 블로그 및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탑재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대학생 행복출산 서포터즈가 공공장소, 학교 등을 방문하여 행복한 결혼, 출산 및 자녀의 소중함에 대해 캠페인 진행과는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해 5만8천여명 사망 매년 1조7천억원 진료비 손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흡연폐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대상을 상실한 관리하여 할 보험자로서
흡연폐해 심각성을 알리고
보험대상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

▶ 매년는 4,800여명의 학식을질과 69억명의 발달장애로 구성

▶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이 2.3배-8.5배 높음

▶ (여성성염전) 결핵, 유산, 기형아 출산위험, 영유아 돌연사 위험 증가

▶ (청소년흡연) 담배 의존성과 질병사망 위험도가 대폭 증가

▶ (중독성 1위) 니코틴은 헤로인, 코카인, 마약화산보다 중독성 높음

각국담배 광고문구 비교

한국	호주	유엔연합	우루과이
RAISON MILK NS	SMOKING CAUSES MOUTH CANCER TONGUE CANCER	유엔연합	FUMANDO SE PUEDE MORIR

담배가격
대한민국 2,000원

나라	담배가격	흡연율
대한민국	2,000원	23.3%
호주	18,200원	13.1%
미국	8,200원	18.8%
일본	9,400원	24.2%
프랑스	9,400원	30.4%
영국	11,300원	22.3%
우루과이	14,370원	21.3%